

세대간 노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 차이에 관한 연구*

Generational Differences in Attitude and Voluntary Behavior toward the Elderly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 수 홍 성 희**

우석대학교 실버복지학과

교 수 곽 인 숙***

Dept. of Consumer Information Science, Keimyung University

Professor: Hong, Sung-Hee

Dept. of Senior Welfare, Woosuk University

Professor: Kwak, In-Suk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generational differences between the youth and the middle-aged in attitude and voluntary behavior toward the elderly, to analyze the socio-demographic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influencing attitude and behavior toward the elderly, and to find out whether the attitude of the youth and the middle-aged toward the elderly was the decisive factor in their behavior toward them. For this study, we surveyed 252 youth (between the ages of 20 and 30) and 314 middle-aged people (between the ages of 40 and 60).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psychological factor had a stronger influence on the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elderly than did the socio-demographic factor. The psychological factor had an especially significant impact on the attitude of the middle-aged population. Second, youths' attitude toward the elderly influenced their behavior toward them; whereas, for the middle-aged,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 was a decisive factor. Third, the youths' area of residence was an important factor in

* 위 논문은 2010학년도 우석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저자: 홍성희 (hsh@kmu.ac.kr)

*** 교신저자: 곽인숙 (kwak1526@yahoo.co.kr)

their attitude toward the elderly; the youth in the metropolitan area had a more negative attitude than did their counterpar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to improve the negative attitude toward the elderly for the youth residing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middle-aged need more easily accessible voluntary work programs by which a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elderly leads to immediate action.

Key Words : 노인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the elderly), 봉사행동(voluntary behavior), 세대간 차이(generational differences)

I. 서론

세대란 생물학적 연령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회적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의 연구들은 세대 간의 차이나 갈등에 관심을 가져왔다. 한 사회의 구성원은 끊임없이 새로운 세대로 대체되는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세대가 갖는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며(조성남·윤옥경, 2000), 다른 가치와 행동체계로 인하여 세대 간의 이해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기(Hogan & Astone, 1986)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정보화를 거치면서 각 세대가 성장하고 경험해온 역사적 상황과 사회경제적 배경의 격차가 커서 이로 인한 생활양식과 행동에도 세대 차이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세대 간의 유사성을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다. Anderson(1973)은 청소년과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자신 세대와 상대 세대의 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두 집단은 태도 면에서 서로 다르지 않았으나, 상대 집단이 자신 집단과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으리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신(1998)의 연구에서도 청소년과 부모 세대의 부양 및 효의식 등의 가족주의 가치관에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노인에 대한 태도에는 세대차가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확대가족 하에서 성장한 중년층은 조부모와 동거하면서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었으나 핵가족 내에서 성장한 청년층은 그러한 가족적 배경을 갖지 못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현재 부모부양의 경험이나 부담을 갖고 있는 중년층과 그렇지 않은 청년층은 책임감과 부양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에서도 세대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세대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 선행연구(이선자, 1989; 윤성혜, 1990; 박경란·이영숙, 2001)에서 세대차가 존재함이 밝혀졌으며, 세대와 성별의 상호작용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윤정 등(2004)의 연구에서도 성별보다 세대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세대에 따라 노인에 대해 상당히 다른 태도와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노인인구가 증가하며 노년기가 길어지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태도 및 행동 측면의 세대 간 차이를 규명하고 비교하는 연구는 청장년층이 노인을 이해하고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관심주제가 될 것이다.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는 주로 세대 간 차이를 비교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세대차를 줄이고 세대 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제안하는 주제들이 주를 이루어왔다. 이

러한 연구에서 규명하려는 변수들은 연령, 성별 등의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청소년의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과 친밀감 등 노인과의 질적, 양적 관계를 측정하는 변수들이다. 특히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조부모와의 관계나 조부모에 대한 지각 등 가족 내에서 청소년의 경험에 따라 노인에 대한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였으나, 실제 조사 결과들은 상반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조부모의 생존은 노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주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Janelli, 1988)가 있는 반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한정란, 2000; Han, 2002; Hawkins, 1996; Sanders et al., 1984)가 보고되고 있다. 청년층의 조부모와의 만남빈도, 전화빈도와 같은 접촉빈도는 노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김윤정 등(2004)의 연구 결과가 있으나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한정란, 2000; Han, 2002; Hawkins, 1996; Sanders et al., 1984)가 더 많이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노인과의 동거나 접촉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가족형태 중 핵가족의 비율이 높아 청소년들이 조부모와 동거하거나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인 것도 조부와의 관계를 연구하고 검증하는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부모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들이 노인에 대한 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다른 요인들의 관련성을 탐색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시작되었다.

노인에 대한 태도를 다룬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태도의 개념을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소를 포괄하는 복합적인 것으로 개념화하거나 노인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측정하고 있어

태도와 행동을 구분하지 않은 모호한 상태로 규정하거나 행동적 측면을 배제한 상태로 진행된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노인에 대한 태도는 그 자체로서 의의를 가질 뿐 아니라 노인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또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노화에 대한 인식과 노후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태도는 태도의 외현적인 반응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Fishbein, 1967를 김윤정 등, 2001에서 재인용)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분리하여 각각의 경향을 파악하는 연구 뿐 아니라 태도가 반영된 행동의 차이, 태도와 행동의 관련성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 영향요인 및 노인에 대한 태도가 노인에 대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한편 청년과 장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는 세대차가 있으므로 청년과 중년세대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비교하고, 세대 간 노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의 영향력을 비교하며, 노인에 대한 태도가 노인에 대한 행동을 결정짓는가의 여부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II. 이론적 배경

1. 세대 간 노인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의 차이

태도는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및 행동적 요소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정의를 노인에 대한 태도에 적용시켜 보면 노인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관점으로 평가하는 개인의 속성으로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소로 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외 연구들은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때 행동적 요소를 태도의 개념에 포함시키지 않고 주로 노인에 대한 인지 및 지식을 근거로 하거나(Palmore, 1988) 정서적 요소로만 측정(Sanders 등, 1984; 한정란, 2000)하는 경향이 있다.

가족 내에서 청소년과 노인은 연령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청소년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조부모를 통해 문화적, 정신적인 연속감과 통합감을 이루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받기도 하며, 세대 간의 교류와 사회화 과정을 통해 부모세대의 가치를 공유하기도 한다(성규탁, 1995). 따라서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청소년 개인의 노인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이나 노인과 의 관계의 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박경란, 1994).

그런데 청소년기에도 연령에 따라 노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의 연령별로 노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이선자(1989)의 연구에서는 아동기에 비해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기로 접어들면서 노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점차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귀연(1995) 이미정(1996)등의 연구도 아동보다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더 부정적임을 보고하였다. 도시와 농촌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영숙(2002)의 연구 결과는 도시와 농촌지역 모두 학생의 연령차에 의한 노인 인식도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각 지역에서 중학생의 경우 고등학생보다 노인에 대해 긍정적이었고, 고학년일수록 긍정적인 이미지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청소년기에는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려는 욕구가 급격히 증가하며, 또래집단과의 동일시 욕구가 강해 다른 세대와는 배타적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청소년기의 발달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년층 내에서도 연령에 따라 노인

의 신체적 특성에 대한 태도에 차이를 보였는데, 40대가 50대보다 신체적 능력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배문조, 2009). 50대의 경우 노년기에 더 가까워지므로 노인의 신체적 능력을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동질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세대 내에서도 연령 증가에 따라 노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달라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세대 간의 차이는 더 크고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세대 간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 윤성혜(1990)의 연구에서는 중년 세대가 청년이나 노년세대에 비해 노인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그 이유를 중간세대로서 자녀양육과 부모부양에 대한 이중 책임의 부담과 실제로 노부모를 부양하면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에서 찾고 있다. 이선자(1989)의 연구에서도 청년기, 성인기, 중년기를 거치면서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다소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중년기로 갈수록 노인을 가족 내에서 부담스럽고 의존적인 존재로 인지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된다는 것이다. 김윤정 등(2004)이 세대 간 노인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노인에 대한 태도는 청년, 중년, 노년세대간에 집단 차이를 보이는데, 중년세대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노년세대에 비해 부정적이었다.

일반적으로 태도는 사회과학분야의 연구에서 개인의 사회적 행위를 예측하고 설명하는데 중심개념이 되어왔으며, 비교적 지속적으로 여러 상황에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되어왔다(배문조, 2009). 따라서 노인에 대한 태도 또한 노인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정 등(2001)은 태도와 행동을 분리하여 개념화하고 노인에 대한 태도 측면인 노인에 대한 인식이 행동적 측면인 노

인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긍정적 노인관으로 확인됨으로써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나 접촉정도, 관계의 질보다는 노인에 대한 인식 즉, 노인에 대한 태도의 측면이 노인에 대한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수라고 해석한 바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태도가 노인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주며 세대 간 노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세대 간 노인에 대한 행동의 차이를 초래할 것으로 본다.

2. 관련변수 고찰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몇 가지 목적에서 시도되어 왔다. 첫째, 세대 간 노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고, 둘째, 세대 통합 프로그램에 의해 세대차를 줄이고 세대 통합 프로그램이 젊은 세대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셋째, 아동이나 청소년과 같이 노인과 연령차가 많이 나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들의 의미있는 노인과의 경험이 노인에 대한 태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러한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주로 거론되고 있는 변수로는 성별, 연령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접촉빈도, 친밀감 같은 관계변인들이 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가장 많은 연구자들이 검증해온 것은 연령과 성별의 효과이다. 연령은 연령에 따른 세대차를 반영하는 변수로서, 성별은 성역할과 관련된 부모부양책임이나 부양경험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 등을 반영하는 변수로서 의미를 가지는데,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는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연령 또는 학급, 성별과 같은 변수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청소년의 조부모와의 동거 및 접촉의 정도가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조사 결과는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한편 단순한 동거경험이나 접촉보다는 조부모와의 친밀감이나 접촉의 질적인 측면이 노인에 대한 이미지나 태도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김윤정·정선아, 2001; Steltz & Verner, 1987)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노인과의 접촉경험이 오히려 노인에 대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배문조, 2009)도 제시되고 있어 질적 측면의 영향력도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성인기에 있는 청년 및 중년으로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과 달리 노인과의 경험이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적은 것으로 보고, 청장년의 심리적 특성의 영향력을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청년과 중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선행연구의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인구학적 특성

① 성별

성별과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는 대체로 청소년들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노인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신귀연, 1995; 이인수, 2000; 한정란, 2000; 김영숙, 2002; 김윤정 등, 2004)가 있는 반면 성인 대상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결과(이선자, 1989; Hoffman, 1980)도 제시되고 있다. 중년을 대상으로 한 배문조(2009)의 연구 결과는 노인에

대한 태도의 하위영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중년남성이 여성보다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 신체적 특성, 지적능력, 적응능력, 성격특성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한편 성별과 세대 간의 상호작용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윤정 등(2004)의 결과에서는 청년과 중년세대에서 각각 남자가 여자보다 노인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모든 세대 중 중년여성의 태도가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을 중년여성들이 노인을 부양하는데 따른 부양스트레스로 인하여 노화와 노인의 과정을 더 위협으로 인식하며 동시에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성별은 노인에 대한 이미지 형성과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나 그 효과는 연령을 비롯한 다른 요인들과의 복합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② 교육수준

중년을 대상으로 한 이선자(1989)의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윤성혜(1990)의 연구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문조(2009)의 연구 결과는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중년층이 대졸이상의 중년층보다 노인의 신체적 특성, 지적 능력, 적응 능력, 성격특성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③ 가족구성

노인과의 동거경험이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고 노인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밝힌 Porter 와 O'Connor(1978)의 연구가 있는가 하면, 이은미

(1990)의 연구에서는 노인과의 동거 경험이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오히려 노인과의 접촉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 더욱 노인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결과를 얻은 경우(임인혜, 1986)도 있어 가족구성의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④ 가계소득

Jewett(1983)의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고(김혜경, 1997에서 재인용), 윤성혜(1990)의 연구에서는 수입이 있는 노인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 소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인수(2000)의 연구에서는 가족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대학생들이 노인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배문조(2009)의 연구결과에서는 배우자의 소득이 257만원 이상인 집단이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집단에 비해 노인의 경제적 능력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가계의 소득과 경제력은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⑤ 거주지와 출생지

노인에 대한 태도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노인과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획득되기 때문에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의 가치관이나 규범에 따라 형성된다(이윤미, 2003). 따라서 거주지와 출생지의 환경과 그 안에서 소속하고 있는 집단의 성격에 따라 노인에 대한 태도 형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농촌과 도시 등 거주지역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곽필선, 1989; 이인수, 2000; 김영숙, 2002)가 진행되어 왔다. 고등학생들을 대

상으로 한 곽필선(1989)의 연구에서는 도시화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일수록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이인수(2000)와 김영숙(2002)의 연구에서도 농촌지역 학생들이 노인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재모(2009)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주 성장지역에 따라 노인에 대한 태도에 차이를 보여 농어촌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거주지역에 따라 노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데, 이에 대해 이인수(2002)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농업이나 가사노동 등 왕성한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있어 이를 목격한 농촌지역 학생들은 노인의 능력과 이미지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인식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비하여 도시지역 노인들은 생산 활동 참여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비생산적이라고 보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⑥ 인지하는 노인연령

노인으로 인지하는 연령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나 이를 변수로 선정한 김영숙(2002)의 연구에서는 노인이 시작되는 나이, 즉 중고등 학생들이 인지하는 노인연령은 도시와 농촌지역 학생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에 각각 영향을 주는 공통적인 요인이며, 도시와 농촌을 합한 전체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는 노인 이미지에 관한 구조는 도시, 농촌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학생들보다 농촌 학생들이 노인기의 시작연령을 더 늦게 보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현상은 농촌의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고 고령화되었으며, 노인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등 생산적인 일을 계속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심리적 특성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무관심은 노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노인차별과 소외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노인차별을 통해 노인의 사회적 위치를 축소시키며 젊은 세대와의 유대관계를 차단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노인의 이미지가 노인에 대한 행동에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때 긍정적인 노인 이미지는 사회통합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황미구·권선희, 2008).

홍봉선 등(2002)에 의하면 노인에 대한 태도가 청년기에 점차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확립의 욕구로 인해 부모 또는 다른 세대로부터 분리·독립하기 위해 또래집단에 몰두하게 되는 배타적 태도의 발달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송관재 등(1997)은 개인의 심리사회적 발달 수준 특히 자율성, 불신감, 수치심과 의혹, 신뢰감 대 불신감 등의 발달수준에 따라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쳐,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며 자신의 의지력을 믿는 정도가 높은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를 더 원만하게 수행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신뢰성이나 자율성과 같은 긍정적인 심리적 요인은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인 사회적 거리감과 상관성이 없었고, 불신감 및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은 사회적 거리감 지각과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리적 특성 중에서도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에 따라 타인에 대한 태도에 달리 영향을 주므로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심리적 특성과 부정적인 심리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여 변수를 선정하였다. 심리적 변수 중 개인의 부정적인 심리사회적 특성으로는 개인의 불안감과 우울감을, 긍정적인 심리사회적 특성으로는 자아존중감과 가족결속력을 선정하였다.

우울감의 주 증상은 우울한 기분이나 그 외에 흥미나 의욕의 저하, 식욕의 변화, 불면

증 또는 수면과다, 불안, 초조, 피로감, 무기력, 무가치감, 집중력 저하, 죽음에 대한 생각, 업무 능력의 저하 등 여러 증상을 동반하며, 미래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으로 인해 타인과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Chow(1999)의 연구에서는 불안감이 높은 노인일수록 노화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자아개념에 대한 평가적 측면의 하나로 '개인이 자신을 가치있는 (worthwhile) 존재로 생각하고 존경받을 만하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Rosenberg 1965; Coopersmith 1967; Wylie 1979; Rosenberg, Schooler, Schoenbach, & Rosenberg 1995). 자아존중감의 수준은 특정한 '행동'을 예측하는데 효율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아존중감이 낮거나 불안정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 자아존중감이 안정적인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더 신뢰감을 갖으며, 자신감이 높았다. Collins와 Read(1990)는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높은 자기 가치감과 사회적 자신감을 갖고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노인과의 사회적 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경(1999)은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가족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노부모 부양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족결속력이 노부모 부양 의식이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세대 간 연령의 격차가 점차 커짐에 따라 세대차가 심화되고 젊은

세대는 노인에 대한 인식과 접촉의 부족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노인들과의 관계 및 자신의 노년기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과 중장년의 노인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면서 특히 세대에 따른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각 세대의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의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청년과 장년의 구분은 에릭슨(Erikson, 1963)의 발달 단계에 따르면 40-60세에 해당되므로(이종복, 전남련, 2007, p.130) 본 연구에서 대학생 자녀는 청년층으로 학부모는 장년층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노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은 청년과 장년 세대 간에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청년과 장년세대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세대 간에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청년과 장년세대의 노인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세대 간에 차이를 보이는가?

2. 변수의 구성 및 측정도구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조사내용은 종속변수인 노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측정하는 문항과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독립변수인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과 심리적 변인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독립변수

①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으로는 조사대상자의 성별, 직업, 가족구성, 교육수준, 월평균 총가

계소득, 거주지, 출생지 등을 포함하였으며, 거주지와 출생지는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② 심리적 변인

심리적 변인으로는 우울감, 불안감, 자아존중감, 가족결속력을 각각 6 문항으로 구성하여 7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7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우울감은 이용호·송중용(1991)이 개발한 Zung(1965)의 자기평가 우울 척도 중 6개 문항을 선정하였으며, 신뢰도계수(cronbach's α 값)는 .698이었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검사를 이영호(1993)가 사용한 자아존중감 척도 중 6개 문항을 선정하였으며, 신뢰도계수는 .720이었다. 불안척도는 Spielberger(1970)이 개발한 STAI를 변안 사용한 김정택(1978)의 척도 중 6개 문항을 선정하였으며, 신뢰도계수는 .792였다. 가족의 결속력 척도는 Olson(1985)이 개발한 척도 중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신뢰도계수는 .697이었다. 또한 인지된 노인연령은 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는가를 주관적으로 판단한 연령으로 측정하였다.

2)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노인에 대한 태도 측정을 위해 사용된 도구는 김태린(1988)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101개 문항으로 예비검사를 통해 30개의 문항을 선정한 후 요인분석과 문항분석, 논리적 검토방법을 통해, 노인이미지 및 노화에 대한 태도, 지적·신체적 능력에 대한 태도,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태도의 3개 하위분야로 구성된 27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7점 척도로 측정된 태도점수는 합산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을 의미하며, 문항의 신뢰도계수는 .766이었다.

노인에 대한 행동은 노인에 대한 태도에 따

라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동특성으로서 노인관련 봉사활동경험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경험이 있는 경우는 1, 없는 경우는 0으로 측정하였다.

3.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조사대상지역은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지역, 중소도시지역, 읍면의 농촌지역을 모두 포함했으며, 청년층인 대학생과 학부모인 중장년층 40, 50대를 포함하여 총 6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이중 부실 기재된 응답자를 제외한 566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기간은 2009년 10월 4일부터 26일까지 예비조사를 거쳐 일부 문항을 수정한 후 2009년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4. 자료의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7.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을 통해, 노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 경향은 t-test와 χ^2 -test를 통해 파악하였다.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노인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logistic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36.9%, 여성 63.1%로 분포되었으며, 연령은 20대가 가장 많고, 40대, 50대의 순이며, 평균연령은 37.09세였다. 조사대상자의 직업으로는 43.5%가 대학생이었으며, 전업주부가 15.2%, 봉급생활자가 18.3%,

자영업자가 14.0%, 농업종사자가 4.2%였다. 가족구성은 핵가족이 89.6%, 확대가족이 10.4%로, 핵가족이 대부분이었다. 교육수준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가 43.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졸업이 26.9%, 대학교졸업이상인 15.9%의 순이었다. 현재 거주지역은 서울과 광역시 거주자가 16.4%, 기타 도시 거주자가 83.6%로 중소도시 거주자가 더 많이 표집되었으며, 출생지로는 서울과 광역시

가 19.6%, 중소도시 지역은 35.5%, 읍면지역이 44.9%로 농어촌지역 출신자가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월평균 총가계소득은 373.3만원으로 200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이 384만원 (통계청)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으나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1200만원까지로 가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가족수는 4명인 경우가 48.2%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가족수는 4.31명이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66)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209	36.9
	여성	357	63.1
연령	20대	252	44.5
	40대	169	29.9
	50세 이상	145	25.6
직업	학생	246	43.5
	전업주부	86	15.2
	봉급생활자	104	18.3
	자영업	79	14.0
	농어업	24	4.2
	기타	27	4.8
가족구성	핵가족	507	89.6
	확대가족	59	10.4
교육수준	중학교졸	58	10.2
	고등학교졸	152	26.9
	전문대졸	20	3.5
	대학재학중	246	43.5
	대학졸업이상	90	15.9
거주지	서울, 광역시	93	16.4
	중소도시	473	83.6
출생지	서울, 광역시	111	19.6
	중소도시	201	35.5
	읍면지역	254	44.9
		평균	표준편차
월평균 총가계소득(만원)		373.30	210.39
가족수(명)		4.31	.927
평균 연령(세)		37.09	14.19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특성 중 우울감은 청년층의 경우 평균 16.46점, 장년층은 18.67점으로 장년층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세대간 차이는 유의적인 수준이었다. 불안감의 경우 청년층의 평균 21.48점, 장년층의 평균 19.22점으로 청년층의 불안수준이 유의한 수준에서 더 높았다. 자아존중감은 청년층이 평균 28.30점, 장년층이 평균 28.97점으로 장년층이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결속력은 청년층이 평균 26.44점, 장년층이 29.66점으로 두 집단 모두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며, 장년층이 가족결속력을 더 강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인지하는 노인연령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커서 최소 55세부터 최대 80세를 노인으로 생각하는 편차를 보였는데, 청년층의 경우 평균 66.51세, 장년층은 67.61세로 장년층이 노인연령을 좀 더 높게 인지하였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법적 기준인 65세보다는 약간 높게 인지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에서 고령인구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기대수명도 더 길어지는 고령화의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심리적 특성의 경향을 비교하면 청년층이 장년층보다 다소 높은 우울감과 불안감을 보이며, 장년층이 청년층에 비해 가족결속력을 더 높게 인식하였으며 노인연령을 다소 높게 인지하였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특성

(N=566)

	청년(252)		장년(314)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우울감	16.46	5.39	18.67	6.13	4.492***
불안감	21.48	5.84	19.22	6.81	4.176***
자아존중감	28.30	5.02	28.97	6.25	N.S.
가족결속력	26.44	7.09	29.66	6.02	-5.846***
인지하는 노인연령(세)	66.51	5.23	67.61	4.66	2.628**

** p<.01 *** p<.001

2. 청년과 장년 세대 간 노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

1) 세대 간 노인에 대한 태도

조사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 중 가장 긍정적인 측면은 청년과 장년집단에서 모두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태도로 청년층의 평균은 4.97점(7점), 장년층은 5.08점으로 노인들도 사회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며 타인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표 3 참조). 다음으로는 지적·신체적 능력에 대한 태도로 청년층은 평균 4.90점, 장년층은 4.72점으로 요즘의 노인들의 역연령(歷年齡)보다 신체적 이미지를 젊게 느끼고 있으며, 늙어서도 성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노인에 대한 태도 중 가장 부정적인 측면은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로 청년층은 평균 4.55점(7점),

장년층은 4.53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으나, 노년기에 대한 전망이 어둡고, 노인이 되면 생활능력이 저하되고 괴팍하고 경직된 성격을 가지게 되며 여러 가지 능력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대에 따라 노인에 대한 태도에 차이를 보이는가를 t-test 를 통해 비교한 결과, 노인이미지와 노화에 대한 태도 측면에서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지적·신체적 능력에 대해서는 장년층이 더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서는 청년층이 더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노인에 대한 태도의 하위 영역에 따라 각각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세대 간 노인에 대한 태도

(N=566)

	청년(252)		장년(314)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노인이미지와 노화에 대한 태도	4.55	.723	4.53	.727	N.S.
지적·신체적 능력에 대한 태도	4.90	.707	4.72	.650	3.162**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태도	4.97	.599	5.08	.652	-2.002*

* p<.05 ** p<.01

〈표 4〉 세대간 노인에 대한 봉사행동

(N=566)

		전체		청년(274)		장년(314)		χ^2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노인관련봉사행동	경험 유	317	56.0	164	65.1	153	48.7	12.303***
	경험 무	249	44.0	88	34.9	161	51.3	

*** p<.001

2) 세대 간 노인에 대한 행동

조사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행동으로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행동 경험이 있는 경우가 56.0%로 절반이 조금 넘었으며, 세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청년층 중 노인관련봉사행동 경험자는 65.1%인데 반해 장년층은 48.7%로 낮게 나타났다(표 4 참조). 이는 최근 서울대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예상 밖의 높은 결과를 보인 것(국민일보, 2010년 4월 25일)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대학과 기업을 중심으로 사회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대학생과 젊은 직장인들의 봉사행동에 대한 호응도가 높으며, 이러한 봉사행동이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3. 청년과 장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노인이미지 및 노화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이미지와 노화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청년층과 장년층을 나누어 세대별로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청년층이 가지고 있는 노인이미지와 노화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22.2%였으며, 거주지, 인지하는 노인연령, 불

안감, 교육수준, 가족결속력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거주지역으로, 대도시 거주자가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노인연령을 높게 인지할수록, 불안감의 수준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결속력이 강할수록 노인과 노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결과는 이선자(1989)의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정적 영향을 보였던 것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의 영향력을 비교하고자 개별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설명력은 8.6%인데 반해 심리적 특성의 설명력은 16.2%로, 심리적 특성 요인이 청년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를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년층의 노인이미지와 노화에 대한 태도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27.4%였으며, 성별, 가족결속력, 거주지, 출생지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장년남성이 장년여성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중년을 대상으로 한 배문조(2009)의 연구에서 중년남성이 여성보다 노인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 가족결속력이 강할수록, 대도시거주자보다는 중소도시 거주자가, 대도시출생자보다는 읍면지역에서 출생한 장년층이 노인과 노화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표 5> 노인이미지와 노화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566)

	청년(252)				장년(314)			
	b	β	b	β	b	β	b	β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166	.903	.426	.025	-4.069***	-.312	-3.543***	-.269
교육수준	1.977**	.158	1.959**	.156	.432	.106	.168	.070
가족구성(핵가족)	-1.679	-.080	-.809	-.039	-2.523*	-.113	-1.030	-.046
가계소득	.001	.022	-.001	-.039	.002	.075	.002	.075
거주지(대도시)	-4.595***	-.292	-4.817***	-.307	-1.502	-.070	-2.777*	-.205
출생지1(읍면지역)	.096	.006	-.821	-.055	-3.300*	-.244	-3.041*	-.202
출생지2(중소도시)	-2.661	-.174	-2.179	-.168	-2.703	-.179	-2.677	-.178
상수	32.501***				45.802***			
F-value	4.501***				7.229***			
R ² (Adj. R ²)	.111(.086)				.142(.122)			
심리적 특성								
우울감	.091	.077	.048	.041	.137	.128	.191	.110
불안감	-.157*	-.137	-.214**	-.186	-.104	-.108	-.159	-.080
자아존중감	.071	.055	.035	.027	.105	.101	.118	.056
가족결속력	.095	.100	.136**	.145	.230***	.211	.271***	.250
인지하는 노인연령	.430***	.336	.359***	.281	.090	.064	.036	.026
상수	11.845*		8.598		22.717***		30.205***	
F-value	11.680***		7.055***		15.880***		10.733***	
R ² (Adj. R ²)	.178(.162)		.257(.222)		.215(.202)		.301(.274)	

한편 장년층의 노인이미지와 노화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의 영향력을 비교하고자 개별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설명력은 12.2%인데 반해 심리적 특성의 설명력은 20.2%로 사회인구학적 요인보다는 심리적 특성 요인이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를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특성 중 가족결속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청년과 장년은 노인이미지와 노화에 대한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차이를 보여 청년층은 거주지, 인지하는 노인연령, 불안감, 교육수준, 가족결속력 등에 의한 영향이 큰 반면 장년층은 성별, 가족결속력,

거주지, 출생지 등에 따라 노인에 대해 태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세대 간 공통적으로 거주지와 가족결속력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알 수 있다.

2) 노인의 지적·신체적 능력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의 지적·신체적 능력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청년층과 장년층을 나누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과 같다.

노인의 지적·신체적능력에 대해 청년층이 가지고 있는 태도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22.1%였으며, 영향력은 거주지, 교육수준, 불안감, 인지하는 노인연령, 출생지

〈표 6〉 노인의 지적·신체적능력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566)

	청년(252)				장년(314)			
	b	β	b	β	b	β	b	β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238	.017	.893	.063	-3.038***	-.258	-3.489***	-.296
교육수준	2.160**	.183	2.394***	.203	.636**	.174	-.003	-.001
가족구성(핵가족)	-.354	-.018	.198	.010	-1.800	-.091	-.699	-.035
가계소득	.002	.063	-5.709	-.002	.001	.043	.001	.031
거주지(대도시)	-5.086***	-.342	-5.362***	-.301	3.770**	.198	2.710*	.142
출생지1(읍면지역)	-.765	-.054	-2.830*	-.186	2.282	.189	2.830**	.234
출생지2(중소도시)	-1.314	-.105	-1.101	-.088	1.813	.135	.873	.065
상수	39.741***				40.734***			
F-value	2.924**				7.289***			
R ² (Adj. R ²)	.105(.079)				.143(.123)			
심리적 특성								
우울감	-.158	-.137	.183	.117	-.268***	-.281	-.311***	-.326
불안감	-.171**	-.157	-.220**	-.201	.215***	.250	.310***	.359
자아존중감	.078	.063	.183	.148	.228***	.243	.224***	.240
가족결속력	.092	.105	.108	.123	.274***	.282	.304***	.313
인지하는 노인연령	.250***	.203	.235***	.191	.120*	.096	.080	.063
상수	22.054***		14.632*		7.673		6.597	
F-value	9.438***		6.518***		32.198***		18.834***	
R ² (Adj. R ²)	.142(.125)		.259(.221)		.343(.333)		.449(.4276)	

* p<.05 ** p<.01 *** p<.001

의 순이었다. 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거주지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그렇지 않은 청년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불안감 수준이 낮을수록, 노인연령을 높게 인지할수록, 대도시보다는 읍면지역에서 출생한 경우 노인의 지적·신체적 능력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의 영향력을 비교하고자 개별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인의 지적·신체적 능력에 대한 청년층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설명력은 7.9%, 심리적 특성의 설명력은 12.5%로 사회인구학적 요인보다는 심리적 특성 요인이 노인에 대한 태도를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노인의 지적·신체적 능력에 대해 장년층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설명해주는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42.7%였으며, 불안감, 우울감, 가족결속력, 성별, 자아존중감, 출생지, 거주지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지적·신체적 능력에 대한 태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불안감으로 불안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우울감의 수준이 낮을수록, 가족결속력이 강할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여성보다는 남성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중소도시 거주자에 비해 대도시 거주자가, 대도시 및 중소도시 출생자에 비해 읍면지역 출생자가 노인의 지적·신체적 능력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의 영향력을 개별회귀분석을 통해 비교한 결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설명력은 12.3%인데 반해 심리적 특성의 설명력은 33.3%이며, 모든 심리적 특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심리적 특성 요인이 노인에 대한 태도를 더 잘 설명해준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청년과 장년은 노인의 지적·신체적 능력에 대한 태도의 영향요인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청년층은 거주지역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반면 장년층은 주로 심리적 특성에 따라 노인의 지적·신체적 능력에 대해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3) 노인의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의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청년층과 장년층을 나누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노인의 대인관계능력에 대해 청년층이 보이는 태도를 설명하는 독립변수들은 30.9%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거주지, 자아존중감, 성별, 인지하는 노인연령, 우울감의 순으로 영향력이 컸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거주지로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노인이미지와 노화에 대한 태도나 지적·신체적 능력 인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태도가 중소도시 거주 청년에 비해 더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또 여성이 남성보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노인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한정란, 2000; 신귀연, 1995; 이인수, 2000; 김영숙, 2002; 김윤정 등, 2004)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 노인연령을 높

게 인지할수록,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의 수준이 낮을수록 노인의 대인관계 능력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심리적특성의 영향력을 비교하고자 개별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년층의 노인에 대한 대인관계능력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설명력은 17.1%, 심리적 특성의 설명력은 20.7%로, 두 특성 모두 노인에 대한 태도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장년층의 노인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태도에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31.9%였으며, 심리적 특성인 가족결속력, 우울감, 불안감이 영향요인이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족결속력으로 가족결속력이 강할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불안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의 대인관계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청년층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 우울감의 수준이 낮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장년층의 노인에 대한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태도는 사회인구학적 특성보다는 심리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의 영향력을 비교하고자 개별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장년층의 노인에 대한 대인관계능력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설명력은 2.8%로 아주 적는데 반해 심리적 특성의 설명력은 29.3%로, 장년층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대부분 심리적 특성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청년과 장년은 노인의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차이를 보여 청년층은 거주지역, 성별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인지하는 노인연령, 자아존중감, 우울감 등 심리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반면 장년층은 개

〈표 7〉 노인의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566)

	청년(252)				장년(314)			
	b	β	b	β	b	β	b	β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여성)	-3.438***	-.286	-2.764***	-.231	-.454	-.038	-.685	-.058
교육수준	.182	.016	-.186	-.016	.585*	.159	.115	.054
가족구성(핵가족)	-2.351*	-.135	-.798	-.046	-2.212*	-.111	-1.504	-.075
가계소득	.004**	.159	.002	.069	.001	.043	.002	.069
거주지(대도시)	-4.982***	-.387	-4.663***	-.369	-.820	-.043	-2.011	-.105
출생지1(읍면지역)	.662	.054	-.326	-.027	1.022	.084	1.550	.128
출생지2(중소도시)	-.733	-.068	-.014	-.001	.929	.069	-.056	-.004
상수	48.220***				44.535***			
F-value	9.048***				2.266*			
R ² (Adj. R ²)	.192(.171)				.049(.028)			
심리적 특성								
우울감	-.239***	-.239	-.159**	-.159	-.197**	-.205	-.247***	-.259
불안감	.123*	.134	.113	.120	.139**	.162	.172***	.200
자아존중감	.222**	.207	.249***	.232	.157**	.167	.096	.102
가족결속력	.041	.053	.054	.071	.357***	.366	.399***	.410
인지하는 노인연령	.234**	.227	.202***	.196	-.012	-.009	-.010	-.008
상수	11.029**		21.059***		26.720***		24.170***	
F-value	17.436***		11.330***		24.151***		13.114***	
R ² (Adj. R ²)	.223(.207)		.342(.309)		.304(.293)		.345(.319)	

* p<.05 ** p<.01 *** p<.001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주로 심리적 특성에 의한 영향만을 보이고 있어 청년층과 장년층의 노인에 대한 태도 형성의 배경이 다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노인에 대한 태도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특히 거주지는 청년층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으며,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재모(2009)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주 성장지역에 따라 농촌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이나 이인수(2000), 김영숙(2002)의 연구에서 농촌지역 학생들이 도시지역 학생들에 비해 노인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

지고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다. 또 청년층이 인지하는 노인연령도 노인에 대한 태도의 각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변수였는데, 김영숙(2002)의 연구에서 중고등 학생들이 인지하는 노인연령은 도시와 농촌지역 학생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인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한편 장년층의 가족결속력은 노인에 대한 태도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였으며, 장년층은 주로 자신의 심리적 요인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노인에 대한 이미지와 지적 신체적 능력이미지를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는데, 이는 많은 연구(김윤정 등, 2004; 배문조, 2009)

에서 중년여성이 남성보다 노인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4. 노인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logistic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인관련봉사행동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logistic회귀모형은 전진입력 방식으로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변수부터 적용하여 청년층은 Wald 통계량 20.207 ($p < .001$), 자유도 7, χ^2 통계량 64.872($p < .001$)로, 장년층은 Wald 통계량 7.640($p < .001$), 자유도 4, χ^2 통계량 89.172($p < .001$)으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청년의 노인관련봉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거주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다음으로는 성별,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태도, 지적·신체적 능력에 대한 태도, 노인이미지와 노화에 대한 태도, 우울감, 가족결속력 등이 영향을 미쳤다. 중소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이 대도시 청년보다 봉사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1.224배 높았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316배 높았다. 대인관계능력 인지와 노인이미지와 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노인관련봉사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지적·신체적 능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지할수록, 우울감의 수준이 낮을수록, 가족결속력의 수준이 낮을수록 노인관련봉사행동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장년층의 경우 성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 여성이 남성에 비해 노인관련봉사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4.167배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가족구성으로 확대가족에 속한 장년층인 경우 봉사행동 수행가능성이 .375배 높았다. 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봉사행동가능성은 1.349배 높았으며, 우울감이 낮을수록 봉사행동수행 가능성이 1.1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청년층의 봉사행동은 노인의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지적·신체적 능력과 노인이미지와 노화에 대한 태도 등 모든 노

(표 8) 노인관련 봉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logistic 분석

(N=566)

	청년(252)			장년(314)			
	P.E.	S.E.	Exp(B)		P.E.	S.E.	Exp(B)
성별(여성)	-.811*	.398	.316				
거주지(중소도시)	1.224**	.409	1.910				
우울감	-.077**	.031	1.090				
가족결속력	-.074***	.023	.929	성별(여성)	1.452***	.285	4.167
노인이미지와 노화에 대한 태도	.089***	.027	1.094	교육수준	.299***	.055	1.349
지적·신체적능력에 대한 태도	-.109***	.031	1.139	가족구성(핵가족)	-.982*	.463	.375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태도	.147***	.037	1.158	우울감	-.115***	.024	1.122
상수	-1.485	1.157		상수	-6.491***	.937	
Log Likelihood	289.784			Log Likelihood	345.921		

* $p < .05$ ** $p < .01$ *** $p < .001$

인에 대한 태도 변수들이 봉사활동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반면 장년층의 경우 노인에 대한 태도 변수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청년과 중년의 세대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비교하고, 이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심리적 변수의 영향력을 비교하며, 노인에 대한 태도가 노인에 대한 행동을 결정짓는가의 여부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세대별 노인에 대한 태도의 하위영역 중 가장 긍정적인 영역은 청년과 장년세대 모두에서 대인관계능력이었으며, 가장 부정적인 영역은 노인이미지와 노화에 대한 태도였다. 세대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 영역은 지적·신체적 능력에 대한 태도와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태도로, 지적·신체적 능력에 대해서는 장년층이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대인관계능력에 대해서는 청년층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둘째, 노인에 대한 행동으로서 노인관련봉사활동 비율이 장년층보다 청년층에서 높은 세대차를 보였다.

셋째, 청년과 장년은 노인이미지와 노화에 대한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차이를 보여 청년층은 거주지, 인지하는 노인연령, 불안감, 교육수준, 가족결속력이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장년층은 성별, 가족결속력, 거주지, 출생지 등에 따라 노인에 대해 태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각 세대에서 공통적으로 거주지와 가족결속력의 영향이 크므로 조부모와 같은 자신에게 의미있는 노인과의 접촉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도시환경에서 세대 간 교류를

유도할 수 있는 통합적 프로그램이나 가족의 유대관계와 결속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족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의 지적·신체적 능력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세대에 따라 차이를 보여, 청년층은 거주지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반면 장년층은 거주지역이나 출생지 이외에 성별과 심리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인의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세대 간 차이를 보여 청년층은 거주지역, 성별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인지하는 노인연령, 자아존중감, 우울감 등 심리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나, 장년층은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주로 심리적 특성에 의한 영향만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노인에 대한 태도의 각 하위영역에서 청년층과 장년층의 노인에 대한 태도 형성의 요인과 배경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청년과 장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의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한 개별회귀분석 결과 청년층과 중년층의 모든 태도의 하위영역에서 사회인구학적 특성보다 심리적 특성의 설명력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심리적변수가 노인에 대한 태도를 더 잘 설명하는 변수임이 입증되었다.

다섯째, 청년의 노인관련봉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거주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다음으로는 성별,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태도, 지적·신체적 능력에 대한 태도, 노인이미지와 노화에 대한 태도, 우울감, 가족결속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 대도시 청년보다, 여성이 남성보다, 대인관계능력과 노인이미지, 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노인관련봉사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지적·신체적능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지할수록, 우울감의 수준이 낮을수록, 가족결속력의 수준이 낮을수록 노인봉사활동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장년층은 성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 여성일 경우, 확대가족에 속한 장년층인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낮을수록 봉사활동 수행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청년층의 봉사행동에는 거주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지적·신체적 능력과 노인이미지와 노화에 대한 태도 등 모든 노인에 대한 태도 변수들이 봉사활동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반면 장년층의 경우 노인에 대한 태도 변수보다는 성별과 가족구성이 노인에 대한 봉사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에 대한 태도를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청년층과 장년층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한 결과 청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 세 가지 측면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요인은 거주지역과 인지하는 노인연령이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 비해 노인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부모가 산업화의 시기에 교육과 고용을 위해 대도시로의 이동을 경험한 세대로서 그 자녀들인 현재의 청년층은 핵가족 안에서 조부모와의 동거경험과 왕래빈도가 적어 노인에 대한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기회를 갖기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대도시에서 성장한 청년세대들은 경쟁이 심하고 사회 변화의 속도가 빠른 대도시 환경에서 노인들이 적합한 직업이나 사회적 역할을 갖는데 취약하고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여 노인의 능력이나 생활에 대해 막연한 부정적 태도를 보

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인으로 인지하는 연령이 많을수록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고령화 사회에서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노년기의 시작을 생물학적인 연령보다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상태와 적극적인 사회생활능력으로 가능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장년층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사회인구학적 특성보다는 주로 심리적 특성에 의한 영향력이 컸는데, 그 중 공통적인 영향요인은 가족결속력이었다. 장년층의 가족결속력은 노인에 대한 이미지와 대인관계 이미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로, 장년층이 지금까지 자신의 부모 및 자녀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시키면서 형성된 강한 결속력과 유대감은 노인에 대한 태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긍정적인 심리적 특성이 긍정적인 태도를 유발시킨다고 하겠다. 또 청장년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강한 가족관계와 유대감은 중년층이 노부모와의 관계를 유지시킬 뿐 아니라 자신의 노년을 받아들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여성 장년층은 남성 장년층에 비해 노인에 대한 태도 중 노인에 대한 이미지, 지적·신체적 능력 이미지를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청년층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부정적인 대인관계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즉,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노인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성 장년층은 가족 내에서 노부모에 대한 부양이나 가사노동을 직접적으로 제공했을 가능성이 남성보다 높으며, 앞으로 노후에 배우자에게 의존해야 하는 가능성이 높아 전반적으로 노인과 노화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노인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청년층과 장년층 양 집단에서 가장 두드

리진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노인에 대한 태도였다. 즉, 청년층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그들의 노인에 대한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노인에 대한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장년층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노인관련행동을 수행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청년층의 긍정적인 태도는 노인에 대한 행동을 유인하는 요인으로서 노인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시각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유도한다면 노인에 대한 봉사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노인과의 경험 및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확대가족의 장년층이 노인에 대한 봉사행동을 수행하는 경향이 높았는데, 확대가족의 장년은 노부모와 이미 오랫동안 생활하는 가운데서 노인부양을 실천하고 있어 다양한 노인관련봉사행동에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장년층의 노인행동은 태도와 의식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부양자녀로서의 경험이나 실천의 한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성별은 청년과 장년의 노인관련봉사행동에서 유의한 변수였는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노인관련 봉사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노인에 대한 태도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성이 노인관련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여성이 부모부양이나 돌봄 노동을 수행하였던 성역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섯째, 거주지역 및 출생지역은 청년의 노인관련행동에 주요한 변수로 나타남으로써 노인에 대한 태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것과 일관된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지역의 인구구성과 생활환경, 성장경험이 노인과 노년기에 대한 태도를 형성시키고 실제 행동 수행으로

연결시키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노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청장년의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에 따른 차이와 영향력을 비교하였으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제안되어온 노인과의 관계 변인을 고려하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청장년층의 성장기의 노인과의 관계를 추적하여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하거나 본 연구에서 청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부각된 거주지역의 생활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 예를 들면 노인인구구성비,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 노인의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등을 추가시켜 거주지역의 영향력을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와 결론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도시 거주 청년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사회적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기관이나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와 대학에서 연계시켜주는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도시 거주자보다 중소도시 거주자의 노인관련 봉사활동이 더 많은 현상과도 관련될 수 있는데, 대도시 거주자들이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이나 실습을 원해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프로그램을 찾아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연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청년층의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노인관련봉사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때 행동에 앞서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대학에

서 노년기와 노후생활계획을 주제로 하는 교과목을 교양과목으로 개발하여 수강의 기회를 확대시킨다면 대학생들이 노인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인 시각이나 태도를 감소시키고 미래 자신의 노후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준비하는 토대를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장년층의 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노인관련봉사행동의 활성화로 연결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장년층의 여유시간을 노인 대상 봉사활동에 할애할 수 있도록 성인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자신의 노후를 대비해 교육을 받거나 강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년기 생활교육을 성인교육의 한 유형으로 확립시킬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강지숙, 정덕유, 김예영(2009). 여대생의 노인부양의식과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한국노년학 29(3), 851-865.
- 2) 광필선(1989). 노인에 대한 고등학생의 인식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3) 김경신(1998).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가족 가치관과 세대간 유사성.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2), 43-65.
- 4) 김영숙(2002). 중고등학생의 노인 이미지에 대한 도시와 농촌의 비교 연구. 한국노년학 21(3), 75-89.
- 5) 김윤정, 강인, 이창수(2004). 청년 중년 노년 세대별 노인에 대한 태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65-75.
- 6) 김윤정, 정선아(2001).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에 대한 인식과 행동간의 관계 규명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6), 173-183.
- 7) 김정택(1978). 특성 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8) 김혜경(1997).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조부모와의 세대차이에 관한 연구: 미국 이민가족내의 한국 청소년과 미국청소년간의 비교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65-79.
- 9) 박경란(1994). 부모-조부모 관계의 질이 청소년기 손자녀-친조부모간의 유대관계에 미치는 영향, 부산시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4(2), 74-89.
- 10) 배문조(2009). 중년기 성인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3), 1107-1122.
- 11) 성규탁(1995). 한국인이 효행의지와 연령층들간의 차이. 한국노년학 15(1), 1-14.
- 12) 신귀연(1995).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한 노인 이미지. 국민대 석사학위논문.
- 13) 신민섭(1993). 자살기제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자기도피 척도의 타당화.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14) 윤성혜(1990). 청년, 중년, 노년층의 노인에 대한 인식비교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윤진, 김선자(1992). 연령증가에 따른 지능의 변화. 한국노년학 12(2), 109-122.
- 16) 이가옥, 이지영, 이미진, 김연순(2008). 세대통합프로그램을 통한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인식변화와 자기성찰 -휴대전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9, 79-110.
- 17) 이선자(1989). 연령단계별로 본 노인에 대한 태도. 이화여대 미간행 박사논문.
- 18) 이용호, 송종용(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5(1), 98-113.
- 19) 이인수(2000). 농촌지역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인식도 연구. 한국노년학 20(2), 123-135.
- 20) 이재모(2009). 한일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 지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45, 117-140.
- 21) 이종복, 전남련(2007).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 학현사
 - 22) 조성남·윤옥경(2000). 가치관과 행위양식의 세대간 차이와 유사성. 사회과학연구논집 5, 1-20.
 - 23) 최승아, 정지홍, 조승중, 진선미(2009). 대학생의 노인대상 자원봉사 참여태도 및 만족도가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노인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 검증. 노인복지연구 46, 239-262.
 - 24) 통계청 <http://www.kostat.go.kr>.
 - 25) 한정란(2000).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3), 115-127.
 - 26) 한정란(2003). 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노년학 23(4), 181-194.
 - 27) 황미구, 권선희(2008). 청소년들의 노인과 동성애자에 대해 주관적으로 지각된 영상매체이미지가 노인과 동성애자의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 영상매체 인물 동일시 및 사회적 자아개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청소년학연구 15(7), 23-47.
 - 28) Anderson, B. E.(1973). Misunderstandings between generation: A general phenomenon? *Scandinav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7(1), 1-10.
 - 29) Beck, A. T., Weissman, A., Lester, D., & Trexler, L.(1974). The Measurement of Pessimism: The Hopelessness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Psychology* 42, 861-865.
 - 30) Chow, N.(1999). Diminishing filial piety and the changing role and status of the elders in Hong Kong, *Hallym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1(1), 1-22.
 - 31) Fishbein, M. (1967). *Reading on attitude theory and measurement*, New York : John Wiley and Sons. Inc.
 - 32) Han, J.(2002). Undergraduate students' attitudes toward older persons in Korea, *Journal of ARAHE* 9(1), 44-49.
 - 33) Hawkins, M. J.(1996).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Elderly Persons. *Educational Gerontology* 22(3), 271-280.
 - 34) Hoffman, E. (1980). Young adults' relations with their grandparents: An exploratory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0(3), 299-310.
 - 35) Hogan, D. P.& Astone, N. M., (1986). The transition to adulthood, *annual Review of Sociology* 12, 109-130.
 - 36) Janelli, L. M.(1988). Depictions of Grandparents in children's Literature. *Educational Gerontology* 14(3), 193-202.
 - 37) Olson, D.H., Portmer, J., & Lavee, Y. (1985). FACES III: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s Scales. In D. Olson, H. McCubbin, H. Barnes, A. Larsen, M. Muxen, & M. Wilson(Eds). *Family inventories(revised edition)*. St. Paul. MN :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38) Palmore, E. B.(1988). *The facts on aging quiz (2nd Ed)*, New York :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39)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40) Sanders, G. F., Montgomery, J. E., Pittman, Jr. J. F., & Balkwell, C.,(1984). Youth'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3(1), 59-70.
 - 41) Spielberger, C. D. Gorsuch. R. L. & Lushene. R. E.(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 Alto. CA :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 42) Steltz, J. A. & Verner, B. S.(1987). What adolescents know about aging. Educational Gerontology 13, 357-368.
- 43) Zung, W.(1965). S Self-rating depression scal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6, 543-547.

- 투 고 일 : 2010년 4월 1일
- 심 사 일 : 2010년 4월 10일
- 심사완료일 : 2010년 5월 25일